

텃밭

이번에 새로 이사간 집에 조그만 뒷마당이 있다. 그 뒷마당은 나무도 없고 잔디만 심어져 있다. 나는 천성이 게으른 사람임을 내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나는 나무가 많은 집이 싫다. 나무를 가꾸는 것도 싫고 가을이면 낙엽 치우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잔디가 있는 집도 싫어 마당이 없거나 마당에 돌이 깔려 있는 집으로 이사갔으면 소망했다. 나는 <보기에 실로 좋았더라.>형이다. <입만 가지고 살아온 남자>다. 나는 남이 가꾸어 놓은 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타입이다. 아버지는 분재와 동양난을 좋아하셨다. 그래서 어린 시절 우리 집에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온실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께서 수시로 이 온실에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아버지께서는 난의 잎사귀 하나 하나를 닦으시면서 난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에 대해 설명하셨다. 분재 하나 하나에 대한 사연과 그 분재가 담고 있는 철학도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분재와 난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셨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보기에 좋았더라>로 만족하는 소박한(?) 소년이었다.

그런 까닭에 이번 집도 가꾸고 들볼 것이 없는 집으로 정해 주십사 간구했는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어느날 아내가 곡괭이며, 삽이며, 갈퀴리며,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은 사 온 것이다. 무슨 공사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잔디밭 구석에 <텃밭>을 만든다고 한다. 아니 멀쩡한 잔디밭을 파엿고 텃밭을 만드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다. 무슨 대단한 채소를 길러서 먹겠다고 그러느냐, 필요할 때 시장가서 사 먹는게 훨씬 저렴하고 경제적이다, 누가 텃밭을 만들고 누가 기를 것인가, 나는 아침에 나갔다가 해 떨어지면 집에 오는데 언제 하느냐, 나는 못한다고 강경하게 대항했다. 아내는 본래 말수가 적은 편인데 단호하게 한 말씀만 하신다. “내가 만들고 내가 키울테니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게임 끝.

그래도 명색이 내가 남자인데 모른 체 할 수가 있다. 텃밭만은 내가 만들어 주기로 마음 먹고 아내가 출근한 토요일 아침에 삽을 들었다.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이 기회에 점수도 따고 싶은 소아기적 영웅심리가 발동했을 것이다. 또 손바닥만한 텃밭이니 내 생각으로는 한, 두시간이면 끝날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끄러운 고백을 할 게 있다. 사실 나는 60년을 살면서 삽이나 곡괭이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장교 시절, 딱 한번의 삽질이 나의 삽질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나는 이날 예고 예고 죽는 줄 알았다. 텃밭 만들다가 죽은 최초의 한인 이민자로 신문 기사에 날 뻔 했다. 정확하게 잔디밭 갈아엎는데만 5시간 30분이 걸렸다. 어설픈 텃밭 만드는데 이들이 꼬박 소요되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어깨며 팔 다리며 아프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날 따라 날씨가 더워 옷통을 벗고 일했으니 어깨는 별절게 익어 버렸다. 며칠을 나누어 일하면 될것을 아내에게 칭찬받겠다는 일념으로 무식하게 일한 것이다. 나는 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노동으로 이렇게 많은 땀을 흘린 적이 없다. 나는 이 조그만 텃밭이 앞으로의 내 인생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지 모른다. 하지만 텃밭을 통해 살아 있는 생명의 존귀함과 노동의 신성함을 배울 것 같다. 무엇을 경작하여 먹는다는 기쁨보다는 흙과 하늘과 햇빛과 비와 바람소리를 배울 것이다.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뉴 햄프셔 월든이라는 호숫가 외딴 곳에서 통나무집을 짓고 2년반을 살았다. 누구의 도움이나 타협없이 자연과 더불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힘든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노예 감독일 때다. 인간에게는 신성(神性)이 있다고 흔히들 말한다. 당신이 하루종일 움츠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막연한 불안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라. 신성이나 불멸은 커녕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즉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평판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의 인생을 조용히 보내고 있다. 이른바 체념이라는 것은 확인된 절망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실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현재의 통상적인 생활방식을 택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고정관념은 지금이라도 버리는 것이 낫다. 아무리 오래된 사고방식, 혹은 행동방식일지라도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어서는 안된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진리라고 받아드리고 묵과하는 것이 내일에는 거짓으로 판명될지도 모른다. 현대인들이 하루종일 죽도록 일하는 것은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다. 이를 <생활 필수품>을 얻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생활 필수품들이 과연 없어서는 안될 필요불가결한 것들인가. 그렇지 않다. 없어도 될 많은 사치품과 유행품들로 내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다. 많은 동물들에게는 단 한가지 생활 필수품, 즉 당장 먹을 것이 있을 따름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가장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간소하고 결핍된 생활을 해왔다. <자발적 빈곤>이라는 고지에 오르지 않고는 인간 생활의 공정하고도 현명한 관찰자가 될 수 없다. 어떤 분야에서 살지라도 불필요한 삶의 열매는 사치일 뿐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의식주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고 간소할지도 모른다. 과연 이 조그만 텃밭이 내게 줄 교훈은 무엇일까? 나에게서 또다른 배움의 시작이다.